

PU 베개 사용하면 편안합니다!

특허청, 다양한 기능으로 출원 ... 고밀도PU 등 신소재 사용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한동안 침대의 기능이 강조되더니 근래에는 베개에 있어서도 특별한 기능을 부가한 제품의 출원이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능성 베개에는 전통적인 베개에서 형상을 개선한 것, 베개 재료를 개선한 것, 베개 내부에 건강에 좋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재료들을 함유한 것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베개의 높낮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로부터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전기식, 기계식, 공기주입식 등 기타 방법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높낮이 조절베개의 출원도 이루어지고 있고 진동베개, 알람내장 베개, α파 유도 베개, 전자파 차단 베개, 공기 정화 베개 등도 소수이지만 출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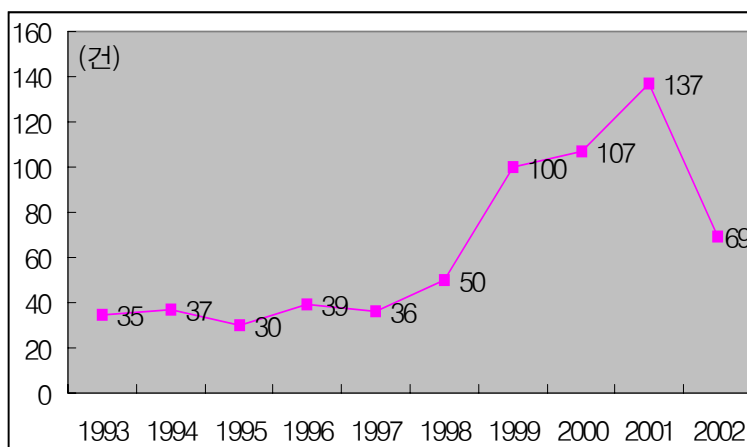
형상을 개선한 베개는 경추 보호를 위해 인체 공학적으로 형상을 설계해 머리받침부·목받침부·어깨받침부 등을 갖춘 베개, 베개의 표피에 지압을 해줄 수 있는 돌기나 마디를 설치하여 지압 효과를 얻도록 한 지압용 베개도 출원되고 있다.

베개재료 또한 전통적으로는 목침과 같이 딱딱한 재료를 사용하다가 메밀, 왕겨, 쌀겨 등을 거쳐 화학섬이나 오리털 등과 같이 서양에서 사용되던 폭신한 재료들이 이용돼 왔고, 요즘에는 이를 개선해 고무재료인 라텍스, 점탄성을 가지는 저탄성 고밀도 폴리우레탄 소재 같은 신소재를 사용한 베개들이 속속 출원되고 있다.

특히, 베개 내부에 건강에 좋은 기능성 재료를 함유한 베개들이 상품화되고 많이 출원되고 있는데 재료로는 쑥, 황토, 맥반석, 게르마늄, 옥, 바이오 세라믹 등이 사용되고 있고 기타 아로마 요법(향기가 있는 식물을 이용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허브에서 추출한 아로마 오일이나 포푸리, 허브잎 등을 베개 속에 함유시킨 것, 한약재를 내장한 것 등도 선보이고 있다.

특허청에 출원된 베개관련 출원건수를 분석해 보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총 177건의 베개 관련출원이 있던 것에 비해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총 463건의 출원이 이루어져 최근 5년 동안의 출원이 그 이전 5년 동안과 비교해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개관련 특허 출원추이



특히, 1999년 이후 3년 동안 1998년보다 100% 이상 증가된 출원 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근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베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997년과 2001년의 베개 출원의 동향을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베개 내장재료를 개선한 것인데 각각 47.2%, 34.3%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997년에 비해 2001년에는 베개 재료를 개선한 출원이 급증했는데, 속 재료로 신소재를 사용해 베개를 베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탄성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베개가 머리 무게에 반응해 머리 형상대로 변형됐다가 하중이 제거되면 원상대로 회복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에 있어서도 재료 개선 베개와 더불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베개 관련특허 출원동향 (단위: 건, %)

구 분	형상개선	베개재료개선	내장재료개선	높낮이조절
1997	7(19.4)	1(2.8)	17(47.2)	7(19.4)
2001	23(16.7)	11(8.0)	47(34.3)	14(10.2)

† 중복개수, 해당연도 베개 전체 출원 대비 비율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건강을 위한 기능성 베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 개발과 아울러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 특히 기능성 재료를 내장한 베개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도 제품 개발 못지 않게 함께 병행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5/14>